

특강 1

군산의 근대 문화 유산과 역사

류보선(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58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과 역사

류보선(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동네』 편집위원)

1. 군산의 어디를 볼 것인가 - 군산의 특이성과 잠재성

조영남의 <화개장터>의 노랫말을 빌자면 군산은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는 도시이다. 아니,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은 군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장소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은 한국 역사와 사회적 관계가 한 자리에 응축된,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관계의 총화인 도시라고.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게 되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현존재들 개개인 안에도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와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있거나, 한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관계가 집약되어 있지 않은 도시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렇게 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이란 한국의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관계가 한 자리에 응축된 그 도시이지만, 그 도시들 중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군산만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다시 <화개장터>의 표현으로 돌아가자면 군산은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도시이나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몇몇 고유하면서도 특이한 역사적 얼룩들과 그 얼룩들로부터 발원한 기묘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이다.

군산의 문화유산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은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다. 잘 알려져 있듯 군산은 식민지 근대화 과정이 그 어떤 곳보다도 앞서서 시행된, 그것도 압축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 도시이다. 군산은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관해서라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것이 앞서서 시행된 전위(?)적인 도시이며 그만큼 식민지 수탈이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도시이다. 군산에서 식민지 시대의 잔여물과 상처들을 집중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다. 하지만 군산을 군산답게 만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군산을 군산답게 만드는 것은 다양하며 다층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얹히고설켜 혼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뭐, 식민지 시대의 흔적과 상처가

압도적이니 그것을 군산을 군산답게 하는 중핵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터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식민지의 흔적과 상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말을 아껴야 하겠지만 좀 앞질러 말하자면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에는 식민지적 수탈과 저항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유념해야 할 여러 문화지리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에는 식민지적 수탈 이전의 자생적인 근대화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런가 하면 치명적인 식민지적 수탈과 그것에 대한 일면적인 저항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촉발된 격렬하고도 치명적인 좌우익 이념 대립의 잔혹극이 스며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일본제국의 극소수의 양심적인 지성과 식민지의 민중적 지성 사이에 용서와 화해의 변증법이 흩어져 있는가 하면, 근대성의 가장 악마적인 형태인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노골적으로 시행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광기의 근대성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대성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탐색된 장소이기도 하다.

군산이 이처럼 다층적인 도시임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산에 대해 흔히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군산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가 ‘군산의 역사지리지를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과 거의 안 한 말’¹⁾을 따져 보는 일 같은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은 목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이 글이 앞서 제기한 일을 만족스럽게 구현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능력 탓이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아직 군산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사회적 디테일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그 신성한 디테일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꿰뚫고 있지도 못하다. 그런데도 감히 군산의 역사지리지를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과 거의 안 한 말에 대해 말해보고 향후 어떤 컨텍스트에서 군산의 역사지리지를 맥락화할 때 군산의 역사와 문화 안에 깃들여 있는 잠재성을 최대한 구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군산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회(轉回)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무당은 사람을 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전의 고착된 상징질서를 혁신시키기도 한다. 부디,

1) 이 표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학비평가 중 단연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형철의 첫 비평집 『물락의 에티카』에 수록된 한 글, 「우리가 ‘소설의 윤리’를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과 거의 안 한 말-세 편의 평론에 대한 노트」에서 따온 것이다. 이 표현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이 표현을 본 이후 만날 수 있었던 새롭고도 놀라운 세계감과 세계상은 아직도 잊을 길이 없다. 아마도 이 표현과의 외설적이고도 실재적인 조우가 없었더라면 나는 군산에 대해 말하면서 그간 군산에 대해 너무 많이 해왔던 말들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2. 식민지에서의 ‘대처’ 라는 상처뿐인 영광(?) ; 군산에 대해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들

정조(正祖) 백만석이 부두(埠頭)에 쌓였더니
여름도 나기 전에 다 어디로 가았느뇨
산(山)머리 움막집에선 배고프다 울어라

앞엔 큰 강이요 뒤에는 바다라도
조개를 캐느냐 자사리를 뜯을느냐
한종일 돌이나 쪼겨 벌이한다 하더라

(이병기, 「군산항」)

우리가 군산에 대해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은 아무래도 식민지와 관련된 말들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군산은 일본 제국이 효율적인 식민지 수탈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한 도시이다. 일본 제국에게는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에서 수탈한 쌀을 실어나를 항구가 필요했고 그 최적지가 바로 군산이었다. 군산은 식민 제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식민 수탈에 최적화된 도시로 재편되고, 식민지 대도시의 보편적인 특성을 갖춘다. 풍요롭고 선진적이며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제국의 침병들을 위한 지역과 그에 비해 더럽고 무계획적이며 가난한 식민지 민중이 거주하는 공간이 나뉘고, 제국의 국민을 위한 지역은 금융지역, 행정지역, 거주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재구성된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 시기 군산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행정, 금융, 산업의 중심지, 곧 ‘대처’ 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 모더니티의 유지하기 위한 과잉의 인구가 유입되어 그중 상당수가 ‘쓰레기가 되는 삶들’,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추방자들’ 로 전락하는 그곳이 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 수탈로 최대 호황을 누린 곳, 그 호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거둬들여 추락하고 전락하고 몰락해야 했던 곳 그곳이 군산이다.

이렇게 식민지 시기 최대 호황을 누렸던 군산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이후 급격한 침체의 길을 걷는다. 식민지 교역으로 최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나 그 식민지 교역이 끊겼으니 이 침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군산의 침체는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미군공항기지 덕분에 군사 도시로 겨우겨우 경제적 명맥은 이어가나 모든 면에서 ‘대처’였던 군산의 위상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해방 후 군산의 정체 혹은 침체는 역설적이게도 군산을 식민지 도시로 바라보게 한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60년대 이후 경제 변화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군산은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 도시의 풍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곳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여튼 군산을 말할 때 근대 문화유산,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흔적과 잔여물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이 곧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군산만의 특이하면서 고유하고 고유하면서도 특이한 역사적 얼룩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전혀 계획 없는 도심 개발 때문에 상당수 식민지적 흔적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군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식민지의 얼룩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 발산초등학교에 있는 시마타니 금고와 유물부터 시작하여 히로쓰 가옥, 내항의 부잔교, (구)조선은행 건물과 나가사키18은행 건물, 장미동 세관 창고 건물, 옛군산부윤관사, 해망동터널 등은 이러한 식민지적 얼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들이거니와 이것 외에도 군산에는 수많은 식민지적 얼룩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아니 굳이 곳곳에서 식민지적 상징을 일부러 찾지 않더라도 군산의 원도심의 풍경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물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산을 말할 때 근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민지 근대화의 잔여물들을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말해서는 군산의 눈에 띄는 특징을 말하는 것일 뿐 군산의 살아 있는 역사를 모두 포괄하기 힘들다. 식민지적 영광(?) 이전의 역사와 식민지 이후의 역사 속에 식민지 시대를 위치시키고 그것을 맥락화해야만 살아 있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말할 수 있으며 또 그것만이 흔히 군산 하면 연상되는 근대 문화유산의 특이성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도 하다. 반복하자면 군산을 말할 때 상처가 깊은 근대 문화유산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말하되 이제는 그것을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

군산을 말할 때 자주 이야기되는 또 하나는 문학의 도시 군산이다. 군산은 한국문학사의 정점에 해당하는 위대한 작가를 두 명이나 탄생시킨 도시이다. 잘 알려져 있듯 채만식과 고은이다. 채만식과 고은은 군산이 낳고 군산이 위대한 작가로 키운 작가들이다. 군산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면 채만식과 고은의 위대한 문학은 지금보다 훨씬 밀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두 작가는 군산의 역사지리지에서 한껏 자양

분을 이어받아 그들만의 독특한 내면을 키운다. 이 두 작가는 단순히 군산 출신의 작가 정도가 아니라 군산의 우여곡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승화시킨 작가들이다. 또한 이 두 작가는 자신들을 키워준 고향 군산에 대해 최대한의 응답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채만식은 『탁류』를 통해 자신의 고향 군산을 근대화의 광기와 위기적 상황이 집약된 곳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구원할 힘도 자라는 곳으로 묘사한다. 고은 역시 마찬가지다. 고은을 지금의 ‘세계의 시인’으로 도약시킨 『만인보』는 고은이 자신을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해준 고향, 고향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군산은 그들 문학의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그들 문학의 도달점이었다. 그랬기에 그들 문학은 위대해질 수 있었다. 고은이 스웨덴에서 ‘군산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은 그러므로 오히려 당연하다. 군산은 채만식과 고은을 낳았고 채만식과 고은은 군산을 위기의 근대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발현되는 그 장소로 재탄생시켰다. 그러므로 군산을 문학의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군산을 말하면서 채만식과 고은을 떠올리고 그들의 문학을 예찬하고 기념하는 것은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채만식과 고은의 문학을 단순히 전시해서는 안 된다. 채만식과 고은 문학이 위대할 수 있는 역사지리지를 더욱 세밀하게 읽어내고 그들의 역사지리지 혹은 역사철학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말, 그렇다.

3. 혼종성과 상생의 철학과 우정의 역사 ; 군산을 말할 때 거의 하지 않는 말들

내 고향 앞바다에는
아주 궁금하게
여기저기 섬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그마하게
노래섬이 잠겨 있습니다

서해 난바다 큰 바람이 닥쳐오면
으레 그 섬 둘레에서는
어김없이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예로부터

큰 바람에 죽은 고기잡이 혼령들이
큰 바람 때마다 어김없이 나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며칠이고 밤낮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섬을 바라보며
자라난 나에게도
황홀한 혼령이 늘어붙어
오늘에 이르도록 노래하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혹 숙연한 세월임에도
어설프게
어설프게만 노래하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고은, 「노래섬」²⁾)

언젠가 군산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산에는 군산에 대해 말할 때 거의 하지 않는 말들이 많으며 이제는 그것 중심으로 군산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고 한 적이 있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마땅한 자리가 아닌 줄은 안다. 하지만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대단한 건 아니다. 솔직히 거의 20년 전 쯤 처음 군산에 왔을 때 군산에 대한 첫인상은 ‘글쎄’였다. 모든 것이 울퉁불퉁해 보였다. 문명의 출발을 알리는 여러 흔적들이 있었고, 근대 이전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원도심 중심으로 자생적인 근대화의 의지와 그것을 뒤덮고 들어온 일제시대의 상처와 유물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뿐인가. ‘무조건 잘 살자’던 개발독재 시대의 살풍경의 흔적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당시 유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을 흉내낸 치기들도 있었다. 군산의 풍경은 일관성도 중심도 없어 보였다. 이게 뭔가. 각각 의미가 있어 보이는 ‘신성한 디테일’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은 마냥 흩어져 있었고 어떤 일관성도 균질성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그 신성한 디테일들을 나름대로 묶어서 서사화, 역사화, 맥락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다.

2) 어느 자리에선가 고은은 「노래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고은 문학에 군산의 우여곡절, 우여곡절의 군산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지처럼 보인다. 내겐.
“군산항 밖의 바다에는 작은 무인도가 몇 개 떠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래섬도 있지. 겨울 내내 소리를 내는 섬이라 해서 그런 멋진 이름이 붙었는데 바로 그 겨울의 절규 오열 같은 소리야말로 서해의 난 바다 어부들이 죽은 뒤의 원혼으로 울부짖는 노래라 해서 노래섬이 되었는지 몰라. 아마도 이 노래섬의 정신이 내 소년의 정신에 이입되어서 내가 선무당 몇 십 년의 시인 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조잡하게 느껴졌다.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세계적인 문예학자인 게오르그 루카치식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신성한 디테일들의 무질서하고 조악한 나열’이라는 느낌이었다. 어디 하나 의미를 붙이기 힘들었고, 그러다보니 정 붙이기도 힘들었다.

한데, 시간이 흐르고 군산의 안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으면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군산은 한마디로 압축된 도시였고 모든 것이 뒤섞인 혼종의 도시였다. 저 멀리 인류 문명의 발상 과정에서부터 새만금이라는 미래의, 그리고 미완의 문명지까지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수탈과 상처가 있는가 하면 우정과 상생의 문화도 있었다. 이렇게 한 곳에서는 공존하기 힘든 요소들이 같이 숨쉬고 있는 곳이 군산이었다. 특히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제적이고 매력적이며 매혹적인 특이성을 몇 가지 지니고 있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군산의 특이성은 군산이 전근대와 근대, 일본문화와 한국문화, 미국문화와 아시아문화, 해양문화와 육지문화, 이식문화와 전통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교한 경제와 증여 윤리가 기묘하게 혼종되어 있는 도시라는 점이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화를 모두 잉태하고 있는 곳을 한국에서, 또는 그 바깥에서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그 공존이 만들어낸 독특한 가치관을 맥락화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원형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것을 새만금의 미래 혹은 미래의 새만금 문화와 연결짓는다면, 군산은 이런저런 역사의 흔적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 문화의 대립이 빚어낸 상처들을 딛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문명의 발상지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군산에 흩어져 있는 여러 역사적 요소들을 역사철학적으로 맥락화하고 그에 걸맞는 스토리-텔링을 발명한다면, 군산은 한국의 모든 역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그곳이었다.

그리고 군산의 또 다른 특이성은 약탈과 수탈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정과 상생의 역사가 같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다는 점이다. 흔히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군산은 제국 일본의 수탈과 약탈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곳이다. 그럴 터이다. 실제로 군산은 식량수탈의 기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산에는 제국의 흔적이 넘쳐나고 그 상처가 임리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처만 있지 않고 우정도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없애려는 그 자리에 제국 일본의 문화를 이식하려는 야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국 일본의 문화에 저항했던 전통 문화의 힘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맥락화한다면, 군산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도시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즉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만 있을 수 있다면, 약탈과 수탈의 상징으로 고착되어 있는 근대 이후 군산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그곳에서 근대성의 광기를 극복할 우정의 역사, 소통의 역사, 상생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또 하나 군산의 중요한 특이성은 이곳이 ‘문학의 도시’ 혹은 ‘예술의 도시’라 부를 만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통영이 스스로 일컬어 ‘한국의 작가들이여 이곳에서 고개를 숙여

라’ 라고 할 수 있듯이, 군산 역시 그러한 곳이다. 채만식이 있고, 고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작품들이 군산을 한국사의 가장 상징적인 그곳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흔적과 선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화적 지도로 만든다면, 군산 역시 한국의 작가들이 반드시 손을 모으고 다녀와야 할 도시가 될 수 있을 터이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다.

마지막으로 군산의 특이성을 하나만 더 찾자면 군산은 영화의 도시가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영상물들이 군산을 거쳐 갔고 또 군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럴 만한 풍경과 풍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한마디로 군산은 한국 역사 전체, 그중에서도 특히 근대 이후 한국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과 상징적인 공간이 모두 포진해 있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분히 맥락화가 가능한, 다시말해 충분히 매력적인 무한한 스토리가 숨겨진 영토들이 무심한 듯 교묘하게 질서를 이루며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군산은 더 이상 ‘글썸’이 아니었다. 탄성이 절로 날만한 경이로움을 품고 있는 도시였다.

정리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런 내용이 된다. 1) 군산은 식민지 근대화의 잔여물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선사시대부터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소였으며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를 품고 있는 지역이며, 그러므로 그러한 광활하고 다양한 역사적 흔적 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 거창하게 말하면 군산은 저 선사시대부터 포스트모던한 미래까지를 한 자리에 품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

2) 군산은 전근대와 근대, 일본문화와 한국문화, 미국문화와 아시아문화, 해양문화와 육지문화, 이식문화와 전통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교환이라는 정치경제학과 평등의 이념이 기묘하게 혼종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 물론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가 한 자리에 모일 때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갈등과 대결을 가져온다. 각 문화 사이에 위계질서와 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해서 군산의 역사는 우여곡절의 역사이며 갈등과 투쟁의 역사이다. 군산의 곳곳에는 이 갈등과 대결이 빚어낸 추락과 타락과 잔혹극이 임리하다. 군산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왔던 말을 상기해보면 충분하다. 일본은 얼마나 마구잡이로 한국의 것을 짓밟고 수탈해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군산 곳곳에 기입되어 있는 역사적 사회적 우여곡절은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군산의 식민지에 대해 말하면서 종종 군산의 여성들이 겪었던 식민지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탁류』에서 선명하게 그려내었듯 식민지 여성의 삶은 ‘심청’의 그것의 반복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폭력적 인식들에 의해, 그리고 그녀들의 가족을 위하는 이타성에 의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

해야 했다. 그래서 군산에는 식민지 시대때부터 채만식이 ‘인간이 동물로 역행하는 곳’ 이라고 이름붙였던 집창촌이 노골적으로 전시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의 상품화는 해방 후 기지촌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 부조리한 실존 형식은 ‘성매매금지법’의 기원이 되었던 화재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뿐만아. 군산에는 해방 좌우의 이념 간의 갈등이 어느 곳보다도 치열했고 잔혹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다음을 보자.

학살자들은 젊은 여자는 당연한 것처럼 남겨두었다가 강간 또는 윤간을 한 뒤 처치했기 때문에 각 굴에서 제일 먼저 발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제부락의 한 임신부는 복부가 찢려서 태아까지 학살당한 셈이었다.

그 분지에는 시체 1백 몇십 구가 발굴되어 홀가마니 아니면 광목이나 백지에 덮여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작 달려온 가족들은 소나무 관을 구해 와서 입관시켜 관을 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시체 발굴 작업에 열중했다. 이런 학살이 비극인지 무엇인지도 알아차릴 겨를없이 시체를 캐냈고 그것을 끌어다가 나무 그늘에 뉘어 놓았다. 이미 시체의 악취는 내 몸에 흠뻑 배었다. 나는 이런 학살 현장에 대한 어떤 생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무감각 상태였다.

그 동안 내가 이만큼 자라난 내 고향에는 언제나 맑은 공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소중한 것인줄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공기의 상큼한 향기 대신 나에게는 죽은 자의 시체가 뿜어내는 그 결줄 바 없는 악취로부터 내 운명도 전혀 다른 것으로 태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들 동안 학살 현장에 있었다. 학살은 그 분지에서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미제부락뿐 아니라 우리 마을의 오랜 폐정(廢井) 역시 사람을 죽여 그 물 없는 우물 속으로 던져놓고 흙을 넣고 다시 생사람을 던져놓고 또 흙을 넣어 덮어서 시루떡을 얹듯 시체와 흙이 단층을 이루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호들과 함께 마을의 빈 집이나 미제부락의 빈 터에 가마솥을 걸고 거기서 해주는 밥을 먹고 함께 학살 현장을 수습하는 어른과 젊은이들과 함께 잤다. 정작 학살당한 사람들의 가족도 어느 정도의 슬픔을 폭발시킨 뒤로는 그저 시뻘건 눈이 되어 어리벉벉했다. 그리고 거기서 가혹하기 짝이 없는 복수의 비극이 씨 뿌려졌다.

할미산은 우리 동네의 진산(鎭山) 노릇을 하는 야산이다. 여기에 일제 말기 일본 관동군의 마지막 진지가 구축되어 사갱(斜坑)으로 된 방공호, 무기고 그리고 옥정골쪽 기슭으로는 토치카가 만들어졌다. 토치카 밑에는 우리 고씨네 중조, 고조는 물론이고 8대조까지의 선산이 있다. 그 비석들은 장관이었다.

바로 그 일본군 진지 중의 굴에 이르렀다. 치안대 간부들이 <어서 들어갓> 하면 그 캄캄한 어둠의 굴 속으로 순순히 굴러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흑인 병사가 군화발로 차서 밀어넣었다.

굴은 급경사로 되었다. 굴 밑바닥에서 살아 있는 목숨의 마지막 절규와 울음소리가 마치 굴을 하나의 포신으로 해서 포탄이 연사(連射)되는 것처럼 굴 안을 울려나오고 있었다. 삶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멈췄다.

거기에 대고 두 병사가 마구 총을 갈러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굴 속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괴괴했다. M1과 카빈은 그렇게 약 1분 동안 굴 안에 대고 집중 사격을 해댔다.

한동안이 흘렀다. 벌레 소리들이 없어졌다. 이 보복 학살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지만 그들 두 병사는 하수인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마을 치안대의 일이었다.

굴 속에 흙을 퍼넣었다. 말하자면 인공협력자들의 학살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그때 굴 속에서 몇 마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은 이미 누구의 소리인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들리고 있었다.

3) 이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들의 혼종성 때문에 술한 갈등과 대결이 펼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세종이었고 압도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문화를 화해시키고 조화시키려는 상생의 역사 혹은 우정의 역사 역시 같이 짝트고 있었다는 것. 그간 수탈과 저항의 역사, 아와비아의 투쟁이라는 역사관 때문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질적인 문화를 발전적으로 지양시키려고 했던 군산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사회적 노력은 충분히 주목에 값하며 이후 군산을 말할 때 더 말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 일본인 지주였던 구마모토와 이영춘 사이의 우정과 화해 같은 것은 반일을 넘어 극일의 소중한 발판이 될 만한 귀중한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4) 채만식과 고은의 문학이 중요한 것은 그들 문학이 군산의 이러한 상처와 잠재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문학이 위대한 것은 군산의 역사를 단순히 재현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지 않다. 그들의 문학은 광기의 식민지 근대화와 해방 이후 파란만장한 역사를 반영하는 한편 그 광기를 넘어 설 가능성의 중심을 집요하게 타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위기 속에서 구원의 힘이 자라난다’ 고 한 휠더린은 말한 적이 있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위기 속에서 자란 구원의 힘만이 위기를 구원할 수 있다’ 고. 채만식과 고은의 문학이 찾은 구원의 힘이 바로 그러하다. 채만식은, 고은은 군산의 위기 혹은 위기의 군산이 만들어낸 광기 속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실존으로 전락하고 죽어가는 공포를 경험한 작가들이다. 동시에 이 위기를 넘어서고 인류를 구원할 어떤 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록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지 않으면 이 공포가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 평생을 살았고 살고 있는 작가들인 것이며, 이 공포의 심연을 끝내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원리를

찾아낸 이들이기도 하다. 예컨대 채만식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교환하는 광기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증여의 윤리를 제시한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주는 선물의 윤리학 혹은 증여의 윤리학을 채만식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힘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재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것을 의무의 형식으로 삼아 살아가자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고은은, 그의 욕망의 매개자인 서정주가 ‘질마재’에서 인류 구원의 힘 혹은 진리의 길을 발견했듯, 군산의 민중에게서 진리의 길을 찾는다. 고은은 군산에서 두 부류의 정신적 멘토를 만난다. 한 부류는 어릴 때 고은 자신의 삶을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던 민중들이고, 다른 부류는 세계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다. 하지만 이 지식인들이 광기에 빠지고 민중들을 학살하자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민중들의 원혼을 위무하고 그들을 희생시킨 민중들을 학살한 지식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렇게 대속의식은 고은 문학의 평생 화두이자 중핵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멘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고은은 그러나 어느 순간 벼락처럼, 벼락 맞은 듯 진리를 발견한다. 그가 만났던 첫 번째 멘토들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가장 지혜로운 존재-자들이자 그들의 건강한 삶이야말로 진리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머슴 대길이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도 잘도 치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뻐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 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 새우는 불빛이었지요.

선제리 아낙네들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피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 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4. 또 다른 군산학, 그리고 또 다른 군산을 위하여

앞서 인용한 필자의 글의 다른 부분을 다시 인용하고 약간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앞서 인용한 글에서 나는 최근 일고 있는 군산의 변화에 대해 몹시도 비판적인 진단과 싸늘한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또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러나 이 감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잠시 군산의 혼종성에 마냥 감탄하고 있는 사이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내가 군산을 진면목을 발견하고 감탄하던 그 순간부터 군산의 풍광은 기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가 지니지 못한 많은 것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매혹적인 스토리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면 되련마는 군산의 문화정책을 결정짓고 움직이는 곳과 정책당국자들은 이 매력적인 군산에서 어떤 매혹도 느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군산의 문화정책자들은 군산이 지니고 있는 그 많은 매력들을 너무 태연하게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옛시청이, 전군가도의 벚꽃길이, 군산역이, 군산내항의 문학적 풍경이, 또 천혜에 가까울 정도로 영화 친화적인 풍경을 지닌 원도심의 풍경이 하나하나 사라졌다. 대신 내항에는 도대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군함과 탱크,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찼고, 도로와 아파트와 큰 건물들이 들어찼다. 그 때문에 오늘날 군산, 특히 원도심은 점점 더 기괴한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는 중이다. 뿐인가. 채만식문학관은 채만식과는 아무 연관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고독하게 달랑 서 있고, 채만식문학상은 전국의 그 많은 문학상 중 가장 특색없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문학상으로 조용하게 운영되고 있다. 뿐인가. 채만식 문학을 발판 삼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기획되지 않은 채 채만식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살아 있는 현역 시인인 고은에 대해서는 때이른 기념사업으로 위대한 시인 고은을 더 이상 현역 시인이 아닌 시인으로 만들기에 바쁘다. 중요한 것은 그 작가를 통해 ‘장사’를 해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작가들을 읽고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일 터이다.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기념사업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진정성이 없는 기념사업은 얼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왜 군산시 정책당국과 문화당국자들은 군산의 지역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장치를 발명하고 그것에 맞게 작은 부분을 보완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명한 콘텐츠를 무조건 이식해오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군산을 기괴한 도시로 전락시키고 파괴해 가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도 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어쩔 일인지 군산은 점점 더 과거형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예전의 풍경과 문화유산을 전시해놓고 그것으로 장사만 하려는 마음 이랄까. 그런 까닭에 식민지 시대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외에 어떤 새로운 문화적 유산을 창조할 계획도 없고, 텅 빈 땅 새만금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문화로 스토리-텔링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준비 작업도 없다. 그런가 하면 채만식, 고은 이후 군산은 그 대를 이을 만한 어떤 문학적 재목도 키워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만식과 고은이 군산이 어디에 주목했고 군산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승화시켰는지에 대한 세밀한 탐색도 하지 않고, 그들 문학이 대단하다고만 반복할 뿐 그들 문학이 왜, 어떤 점에서 위대한지를 밝히고 철학적으로 맥락화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군산은 현재 어떤 갈림길에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군산 곳곳에 포진해 있는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군산의 과거들을 충분히 의미 있는 역사철학으로 재맥락화해 향후 또 다른 문명적 성찰을 행하는 도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잘 알려진 과거를 그저 단순하게 많이 해왔던 말로 다시 이야기하며 장사거리가 되는 동안만이라도 장사를 열심히 하느냐 하는 갈림길이라고나 할까. 당연히 나는 군산의 모든 관심이 전자 쪽으로 옮겨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크겠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군산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이다.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들을 간혹 듣는다. 예전에는 그때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목소리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거대한 벽 앞에 다시 서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이 엉성한 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말을 하려면 훨씬 더 치밀하고 세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세상이 힐끗 고개를 돌려준다는 것. 비록 힐끗 돌려진 고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지만 절망스럽더라도 바로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것. 채만식의 문학이, 고은의 문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으나 거듭거듭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장면들을 짚어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 또한 채만식 문학과 고은 문학이 위대하다는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 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을, 현행의 진정성과 거리가 먼 관행을 탓해서는 안 된다. 나도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겠으므로. 그렇다면 이제 나부터 군산의 역사지리지를 말할 때 너무 많이 한 말을 그만하고 거의 하지 않은 말을 시작해야 할 터이다. 또 다른 군산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군산학을 해야 한다는 것인 셈인데, 이거, 참,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결론이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그것이 채만식과 고은 선생이 내게 넘겨준 선물인데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미래의 채만식과 고은에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의무의 형식을 원컨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본다. ‘원컨대, 용기이어라’